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논·밭두렁,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합니다.

최근 10년간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다 39명 사망

1 농업용 폐비닐

사례 태우다 70대 남자 사망

2016년 3월 경북 영천시 서모씨 (79, 남)가 농업용 폐비닐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



2 논·밭두렁

사례 태우던 70대 여자 사망

2014년 2월 광주 광산구 나모씨 (79, 여)가 논·밭두렁을 태우다 연기에 질식사 사망



함께하는 산불예방

www.mafra.go.kr
www.forest.go.kr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 불 신고는 시·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산림청 산불상황실 : (042)481-4119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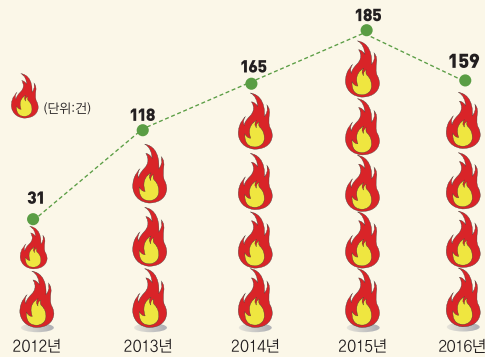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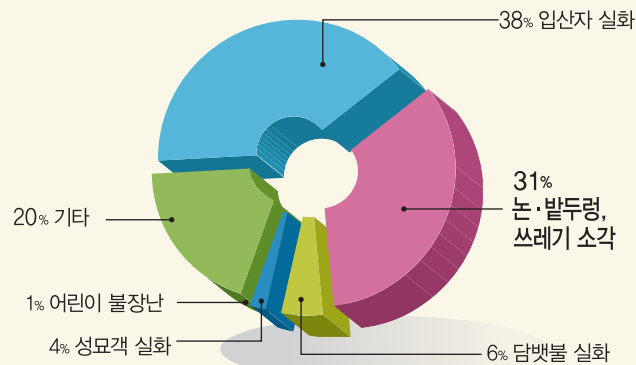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매년 논·밭두렁, 쓰레기를 태우다
1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산불발생현황

전국 산불 발생원인의
31%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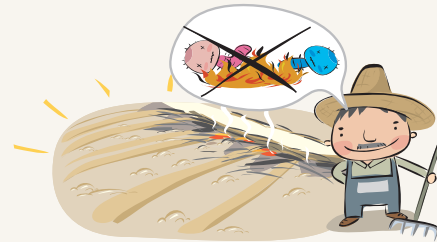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주요 원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는 이유



-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 마른 풀과 비닐 등 영농잔재물을 정리하려는 의도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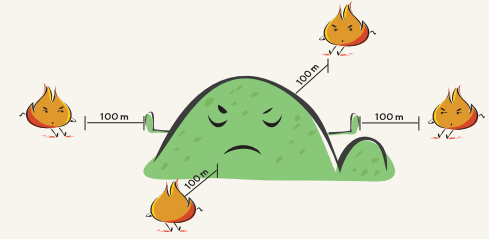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병해충	내용
도열병	그냥 두어도 벼에 전염성이 없음
흰잎마름병	수로에 서식하므로 불태우기와 관련없음
벼물바구미	산기슭 땅속에서 월동하므로 논두렁 소각과 관련없음
애벌레	논독을 태우는 정도로 방제효과 없음
병충해 천적	불태우기로 해충(11%)보다 이로운 벌레(89%)가 죽게 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농촌과 산림을 보호합니다!

●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풀베기나 수거하여 처리
- 산림 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산림 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 새해 농사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작업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오전에 실시
- 비닐, 영농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마을 공동으로 실시
- ※ 마을 공동작업시 산불확산에 대비하여 진화차, 진화장비 등 배치